

Session 09 이기는 자의 상급 (계 2-3장) (The Rewards of the Overcomer)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7)

...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2:10-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 2:17)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26-29)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5-6)

... 저희(박해자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9-13)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8-22)

I. 소개

A. 계시록 1-3장은 독특하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잠재적인 영원한 상급들에 대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보다 예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한 많은 계시를 부여하신다.

B. 예수님께서서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이 상급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성취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상급들은 한 사람의 순종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분량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 상급들은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서도 다양한 분량으로 성취된다 : 계 2:7 (22:2,14); 계 2:10 (22:2,14); 계 2:11 (20:14; 21:8); 계 2:17 (19:9); 계 2:26-28 (19:14-15); 계 3:4 (19:8,14); 계 3:5 (20:12,15; 21:27); 계 3:8 (22:16); 계 3:9 (21:23-26); 계 3:10 (4-19); 계 3:12 (21:2,10); 계 3:20 (19:9); 계 3:21 (20:4).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 상급들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에 대해 들을 귀를 가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는 이 말씀들이 의미하고 있는 총명한(온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와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상급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II. 흰 옷을 입게 됨 (계 3:5)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 (계 3:4-5)

- A.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의 선물과는 다른 것이다. 칭의(justification)는 우리의 어둠함이 아닌 예수님의 존귀하심에 근거에 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엡 2:8-9; 디 3:4-7). 우리가 입게 되는 의복들은 믿음으로 주어진 의의 선물로부터 시작된다(고후 5:21).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복들은 각 성도들의 헌신을 표현한다. 각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의복은 각자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 19:8)

- B. “흰” 것은 의복의 광채를 말한다. 희다(그리스어, *leukos*)라는 단어는 “빛나고 반짝거림”을 나타낸다(마 17:2; 계 3:4,5; 6:11; 7:9,13; 19:14).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의복의 광채이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 17:2)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 104:2)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 15:6)

- C. 새 예루살렘은 벽옥(다이아몬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계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계 21:11)

- D.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와 연관된 색깔은 벽옥, 홍보석, 녹보석(에머랄드)과 남보석(사파이어)이다.

앞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다이아몬드)과 홍보석(붉은빛)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 4:3)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겔 1:22,26)

- E. 모든 의복들은 각각 서로 다른 광채와 서로 다른 종류의 디자인과 재질, 색깔, 향기를 띠게 될 것이다. 다가올 시대에 입게 될 의복의 광채는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성숙함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 각자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게 되며,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 드렸던 헌신의 깊이를 드러내는 의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 15:41-42)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 13:43)

- F. 예수님께서서는 의로운 삶에 대한 상급으로써 하늘의 의복을 주신다. 여기서 그분은 경험적인 의 또는 의의 행위¹⁾를 말씀하고 계신다. 계시록은 다가올 시대의 우리의 의복에 대해 8번이나 언급하고 있다(계 3:4-5,18; 16:15; 19:7-8).

- G. 의복이 희거나 광채 나는 부분은 다가올 시대에 우리에게 있을 의복의 한 측면일 뿐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 7:9-14)

- H. 우리의 의복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일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왕이나 대통령은 행사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다. 집에 있을 때, 사무적인 회합에 참여할 때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군사적인 역할을 할 때 왕은 각기 다른 옷을 입는다. 때로 그들은 옷에 훈장과 같은 장식을 달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매우 편한 옷을 입으며, 어떤 날은 정장을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여하기도 한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옷이 필요하게 된다.

- I. 구약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복에 부여하시는 가치를 엿볼 수 있으며, 각 의복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분의

1) 역자주 :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삶에서 드러나는 경험적인 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다(출 28:1-43). 이 의복들은 각각의 독특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의, 흉패, 에봇, 겹옷, 속옷, 관, 띠, 면류관).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 ...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한글 KJV : 아론을 성별케 할 그의 옷을 만들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 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 42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출 28:2-4, 40-42)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속 6:11)

- J. 구약의 제사장의 옷은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적색, 청색, 자주색, 흰색 등). 흉패는 에봇 위에 두었으며, 어깨에는 호마노 조각들을 두었다. 에봇은 겹옷 위에 입었으며, 겹옷은 속옷과 속바지(고의) 위에 입었다.

III. 흰 옷을 사게 됨 (계 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 3:18)

벌거벗게 되거나 영원 속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의복의 상급이 없음을 말한다. 모든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벌거벗음의 수치, 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알려주는 “더하여진 의복의 상급이 없음”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 16:15)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28)

IV.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됨 (계 2:10)

- A. 이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이 믿음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영생의 선물과는 다른 것이다. 이 면류관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통치/기반구조)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주실 것이다. 이 상급은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관되게 서 있음으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 1:12)

- B.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받게 되는 면류관에 대해서는 신약에 9번 언급된다. 이 면류관은 두 번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자세한 설명으로 언급된다(약 1:12; 계 2:10); 한 번은 “의의 면류관”으로 나오며(딤후 4:8), 또 한 번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온다(벧전 5:4). 면류관에 대한 서로 다른 명칭은 아마 동일한 상급에 대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전 9:25; 계 3:11; 4:10).
- C. 신약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면류관을 묘사하는 두 가지 그리스어가 있다. 하나는 통치자의 면류관(그리스어, *diadem*)이고, 다른 하나는 승리자의 면류관(그리스어, *stephanos*)으로써 그리스 운동 경기에 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리스어 *stephanos*는 계시록 2:10절과 야고보서 1:12절에서 사용되었다.
- D. 생명의 면류관은 특히 핍박을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인데,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더 큰 분량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후 4:16-18).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후 4:17)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

V.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음 (계 2:26-27)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 2:26-27)

- A. 이는 천년왕국에서의 다스림을 말한다(눅 19:11-27; 딤후 2:12; 계 3:21).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권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고후 5:10). 부도덕과 음행을 이겨내고 충성되게 서 있는 자들에 대한 상급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다 다스림과 통치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 B. 충성된 자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며, 질그릇을 깨뜨림같이 부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러한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에 대해 예언했다(시 2:8-9). 철은 깨질 수 없고 불변하는 통치에 대한 상징이다. 열국은 철장에 의해 마치 깨지기 쉬운 토기가 박살이 나듯 부서지게 될 것이다(계 12:5; 19:15). 예수님께서서는 충성된 자들과 동역하셔서 열국을 헐고 새로 세우는 복잡한 과정을 행하실 것이다.

VI.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됨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한글 KJV :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이 약속은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열려있는 약속이다(계 5:10; 11:15; 20:4).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

셨다(마 19:28; 눅 22:29-30).

VII.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됨 (계 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 (계 3:12)

A.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에서 기둥이라는 권세의 자리를 주시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둥이 되는 것은 천년 왕국 때에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의 한 부분이 되지만(엡 2:21-22),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권세와 책임과 명예의 자리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베드로)와 요한도 ... (갈 2:9)

B. 기둥은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역할을 한다. 기둥에는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한 장식의 목적도 있다. 또한 기둥은 용기와 선행과 사랑의 영웅적인 행동을 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기둥은 영구적이기에 고정됨과 지속성을 나타낸다. 스랍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역할을 하듯, 이들은 예수님의 도성의 “기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C. 기둥들은 건물의 무게를 견디며 과거의 위대함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건물을 아름답게 하기도 한다.

D. 고대에는 어떤 이가 그들의 도시를 특별한 방법으로 섬겼을 때, 이를 기리는 의미에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을 우상 신전에 세웠다. 고대의 기둥들은 사람들을 칭송하고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묘비)을 세웠다(창 35:20).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헌신에 대해 “기념하는 기둥”을 세우실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집트 땅에 이러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사 19:19).

E. 야곱의 열두 아들과 열두 사도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에 쓰여 있게 될 것이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계 21:12-14)

F.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의 기둥들을 통해 이 약속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솔로몬은 성전 앞쪽의 문에 두 개의 큰 놋(청동) 기둥을 세우고 개인의 이름들을 붙였다(왕상 7:15-22; 대하 3:17). 그는 하나를 야긴(고정, 불변)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를 보아스(힘)라 불렀다. 이는 아마 “큰 불을 피우는 제단”으로써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곳이었을 것이다. 각각은 등대(lampstand)와 같이 꼭대기가 기름 대접에 연결되어 있었다(왕상 7:412; 속 4:3). 이 기둥들은 금과 사슬 모양의 땅은 것들과 석류와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이 엄청난 향은 성전의 정면에서 빛을 내며 서 있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불과 구름 기둥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불과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움직이는 기둥이었다(출 13:21-22; 14:19-24; 33:9).

2) “공 같은(bowl-shaped)”이라고 표현된 형상은 “주발(잔) 같은 모양”을 말한다.

VIII.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게 됨 (계 2:17)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 2:17)

- A. 귀금속은 전쟁이나 공동체에 영웅적인 일을 행한 사람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상으로 주어졌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금메달을 받는 것과 같은 특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에 의해 주최된 게임이나 축제 등의 특정한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고 같이 내가 그들을 야끼리니 (말 3:17)

- B. 돌(그리스어, *pshfos*)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금속을 의미한다. 흰(그리스어, *leukos*) 것은 “빛나고 반짝 거리는 것”을 의미한다(마 17:2; 계 3:4,5; 6:11; 7:9,13; 19:14). 이 돌은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명예와 특권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상에서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 앉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그 사람의 통치의 역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 C.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 어떤 이의 충성됨과, 성품과 천년왕국에서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이름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사 62:2; 65:15; 계 19:11-16; 계 14:1; 야 1:3; 행 15:17). 이 새 이름은 마치 금메달을 받는 것과 같이 흰 돌 위에 기록될 것이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애칭을 지어주듯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분이 지어주시는 충성된 이름을 허락하실 것이다.
- D. 새 이름은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창 32:28; 사 62:2; 65:15),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가지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야곱은 그의 통치의 자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타내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시몬은 그의 성품과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창 17:5-15).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 또한 바꾸셨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왕(왕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창 32장).

IX. 새벽별을 받게 됨 (계 2:28)

...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계 2:25-28)

- A. 새벽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민 24:17-19). 여기에서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 새벽별이 되심은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남을 나타낸다(계 1: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계 22:16)

- B. 새벽 별은 날이 밝기 직전 새벽에 하늘에서 보이는 가장 밝은 별(금성)이다. 새벽별을 받는다는 것은 예언적인 성경 구절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부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현재에 이 상급을 받는 것은 천년 왕국의 새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대 환란의 어둠이 증가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더 많은 예언적인 조명하심을 풀어놓으시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을 밝히시며, 우리가 사랑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벧후 1:19)

X.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됨 (계 2:17)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 (계 2:17)

- A. 감추어진 만나를 받게 되는 것은, 현재와 다가올 시대에서 말씀에 대한 더 많은 계시를 가지게 됨을 말한다. 이 만나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에게 총만하게 제공될 것이다. 대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제적인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계 12:6,14).
- B. 만나는 지성소의 언약궤 안의 금 향아리에 넣어진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다(출 16:32-36; 히 9:1-5).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번, 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감추어진 만나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만나 또는 “권세 있는 자의 떡”(angel's food, 천사의 음식, 시 78:19-25)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먹이셨다.

XI. 이름을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함 (계 3:5)

...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 하리라 (계 3:5)

- A.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잃는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 아닌, 각자의 이름에 관련된 명예를 잃지 않을 것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다. 어떤 이의 이름과 성품은 하나님께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실체이다. 이에 대한 배경은 고대에 도시의 기록부에 시민들의 행실에 대해 기록한 관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세금 납부와 고귀한 업적 또는 범죄 행각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 B.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들의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헌신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들의 옳은 행실을 “기억된 기록”에서 흐리지(지우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영원을 통해 계속해서 아버지께 말씀하실 것이다.
- C. 하늘의 책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실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

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표준새번역 : 비망록, 한글 KJV : 기념의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6)

- D. 우리의 옳은 행실들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에서 돌아서면 흐려지게(지워지게) 된다. 에스겔은 의인이 의로운 행실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잊으시는지”를 가르쳐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해나가는 좋은 행실의 “결론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행실에서 돌아설 때 이것들을 “잊으신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겔 3:20)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겔 18:24)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도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 20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겔 33:13-20)

- E. 영원한 상급조차도 잃을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 3:11)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3:14-15)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요이 8절)

- F.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이다. 이는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의 충성됨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인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행적과 순종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한글 KJV :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마 25:21)

- G. 종교개혁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값없는 의의 선물인 칭의의 진리를 영광스럽게 강조했다(롬 3:21-31; 고후 5:17-21).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잘못 적용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동

일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드렸는지에 상관없이 말이다.

XII. 우리를 핍박한 자들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음 (계 3:9)

... 저희로(박해자들)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계 3:9)

- A.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믿지 않던 자들은 자신들이 핍박하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신부를 핍박하던 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부를 향한 사랑을 보이실 것이다. 그분의 깊은 사랑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열방 앞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 B.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 예수님께서서는 충성된 자들을 박해하던 믿지 않던 자들 앞에서 충성된 자들의 옳음을 증명하심으로, 충성된 자들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분의 깊은 사랑의 표현은, 핍박받던 사랑받는 자들을 옹호하시는 것에서 드러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그들이 핍박하던 자들 발 앞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이 믿지 않는 거짓된 유대인들은, 천년왕국 때에 진실한 성도들 앞에서 존경을 표하게 될 것이다(사 45:14; 49:23; 60:14; 속 8:20-23). 그들은 1세기에 그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부복하게 될 것이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사 60:14)

- C. 마지막 날에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0-11)

XIII.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친밀한 계시를 얻게 됨 (계 3:12)

...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2)

- A. 사람의 영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분량의 친밀함은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세 가지 이름 즉,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B.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쓰신 것처럼(출 31:18),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실 것이다(고후 3:3).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약속)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말씀)을 저희 마음(감정)에 두고 저희 생각(이해)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히 10:16)

1. 마음 :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의 영과 살아있는 지혜를 풀어주심

2. 생각 : 우리 감성 안에 힘을 더하셔서, 거룩한 갈망 가운데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심

- C.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갈망과 권세를 받으며 동역자의 위치에 있게 되며, 그분의 마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깊은 계시를 받게 됨을 말한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순금으로 만든 패를 이마에 두었다(출 28:36-38). 성도들은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다(계 7:3; 14:1).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될 것이다(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 22:4)

XIV.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친밀한 계시를 갖게 됨 (계 3:12)

...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2)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에서의 권세를 허락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이해할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도시에 대한 열쇠를 부여받거나 그 도시의 아비라 불리게 됨으로, 그 도시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한 독특한 권세와 헌신과 이해함을 드러낸다.

XV.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친밀한 계시를 얻게 됨 (계 3:12)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2)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아름다움을 충성된 자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계시록 19:12절에서 보이는, 하나님이자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더 충만한 계시를 말한다.

...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 19:12)

XVI. 하나님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됨 (계 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 (계 3:18)

- A. 거룩한 성품의 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그분과 그분의 의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시대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벧전 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벧전 4:12)

- B. 금의 연단됨은 쉬운 과정이 아니며 불 없이 되지도 않는다. 금을 찾기 위해서는 땅을 파헤쳐야 하며 찾은 금은 불속에 넣어져야 한다. 불에 의해 정련되는 금은 내부의 찌끼를 제거하기 위해 값비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된다.

2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 3:2-3)

- C. 여기서 금을 얻으며 부요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일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또한 영원한 금과 보화를 말하는데, 이는 하늘의 건물과 면류관들과 의복들에서 보이게 될 것들이다. 금은 우리의 지위를 말해준다(특권 또는 트로피/메달). 이는 결혼식에서의 다이아몬드 반지의 역할과 같이 마음의 표현이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와 하늘의 의복에서 쓰이게 될 것이다(시 45편). 그러나 이것이 하늘의 화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고전 3:12)

- D. 금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들 중 한가지일 뿐이지만, 이는 실제적인 것이다. 이 영원한 금은 우리의 사랑과 순종의 분량에 따라 주어지게 될 것이다.

XVII. 계시에 대한 기름부음을 받게 됨 (계 3:18)

...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 3:18)

- A. 사람들은 눈병이 났을 때, 이를 고치기 위해 안약을 사서 자신의 눈에 넣는다.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의과 학교는 안약에 쓰이는 “분말”을 수출했다. 이 프리지야 분말은 반죽과 같이 만들어져 눈에 발라졌다.
- B.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눈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오직 성령님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부어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기 위해 실제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영을 둔하게 만드는 가치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는 실질

적인 과정들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XVIII.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됨 (계 3:20)

...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 이는 언약적인 친밀함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깊은 교제 관계 안에 있게 됨을 말한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과 그분의 의를 향한 열정에 대한 계시가 더해짐으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영원의 측면에서는 어린양의 혼인 만찬을 말한다(계 19:9; 눅 22:16,29,30; 마 26:29; 막 14:25).

XIX.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됨 (계 2:7)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7)

(한글 KJV :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 A. 모든 성도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특별한 특권이 따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 B. 아담은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 2:9)

- C. 거리의 한 가운데와 생명수의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2)

(한글 KJV :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 나무가 있어 ...)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 (계 22:14)

XX.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음 (계 2:11)

...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2:11)

- A.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말한다(계 2:11; 20:6,14; 21:8).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음부로 간다.
- B. 둘째 사망이 집행되는 가장 끔찍한 날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해진 일들이 가장 안전한 일임을

모든 이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에서는 의로운 자들의 지혜로움과 죄의 끈적함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의 “위대한 반전”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핍박받는 자들에게 확언하며 말씀하신다. 그들은 영원 안에서 어떤 것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XXI. 우리의 반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 A.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 예수님께서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 가까이 나아올 것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문을 여실 수 있지만 (계 3:7-8), 우리의 마음의 문만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실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그들 가운데 그분의 임재 없이, 그분의 이름을 가진 것과 그분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 B.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 당신은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희망과 기회는 여전히 당신을 향해 충분히 열려있다.